

제주드림타워, '카페 8' 풀사이드 신메뉴 출시

북한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캐주얼 레스토랑 '카페 8' 야외테라스에서 즐길 수 있는 풀사이드 신메뉴를 출시했다. 치킨 팔콘, 7종의 피자과 제주 화이트 에일 생맥주, 5종의 시그니처 칵테일 등을 갖추고 있다. 메뉴는 '카페 8' 총괄셰프인 마리오 카라멜라가 기획했다. '카페 8'은 제주 최대를 자랑하는 야외 풀데크 등을 갖춘 캐주얼 레스토랑이다.



승부수 던진 이재용...삼성, 新성장동력에 대규모 집중투자

“반도체·바이오 450조 투자...8만명 신규 채용”

신소재 R&D 강화·첨단 기술 도입 등 메모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바이오, 공장 추가건설 등 적극 추진 일자리 창출·인재양성에 투자 확대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한 단계 UP”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미래 먹거리 450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그 중 80%인 3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부수로 분석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공장을 방문한 지 4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한미 반도체 동맹’과 정부의 ‘반도체 조강대국’ 달성 목표에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80%인 360조는 국내 투자

삼성은 이날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정보기술)’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관계사와 함께 4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330조 원보다 120조 원 늘어난 수치로, 연평균 투자규모를 30% 이상 늘린 것이다. 국내 투자액인 360조 원도 지난 5년 간 투자액(250조 원)보다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삼성이 향후 5년 동안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450조 원을 투자한다. 국내에는 그 중 36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먼저 반도체 사업에선 선제적 투자로 ‘반도체 조강대국’ 달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쟁 업체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선 신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EUV(극자외선)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초격차’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팹리스(설계) 분야는 고성능·저전력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5G·6G 통신모뎀 등 초고속통신 반도체, 고화질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반도체 및 센서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는 3나노 이하 제품을 조기 양산하는 등 선단공정 중심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삼성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바이오 사업에서도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다. 중장기적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및 시뮬러(복제약)를 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고,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신화’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CDMO는 건설 중인 4공장에 이어 5·6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공격적 투자와 생산기술 및 역량 고도화로 ‘생산량 1등’을 넘어 ‘압도적인 글로벌 1위’를 확고히 하고,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파이프라인 확대, 고도화도 추진기로 했다. 그 밖에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인공지능(AI)

I)과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IT 분야에서 ‘초격차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앞으로 5년은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 쇠락을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IT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핵심 사업 중심 채용 확대

삼성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향후 5년 동안 신규로 8만 명을 채용한다. 지난해에도 3년 동안 4만 명 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삼성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채용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현재 2022년 상반기 공채를 진행 중이다 삼성은 또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드림클래스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의 파이를 키워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조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가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위크리프, 아이들 눈높이 맞춘 중국어앱 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노래·게임 통해 회화 자신감 높여



위크리프(대표 박정연·사진)가 모바일 앱 기반의 중국어 교육콘텐츠 ‘차이팡 중국어’를 출시했다.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노래, 게임 등을 통해 스스로 중국어를 익히고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중국

어 전문가가 성조 높낮이의 절대값과 상대값을 음계에 적용해 학습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과정을 주제별, 단계별로 구성했다.

자체 개발한 차이팡 프렌즈 캐릭터를 따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중국어의 발음과 성조를 익힐 수 있다. 아이들과 친숙한 집, 유치원, 학교, 마트, 공원 등을 소재로 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차이팡 중국어’는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교육산업대상, 교육박람회 초기·초등 부문 어워드 등의 상을 수상했다.

박정연 대표는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콘텐츠”라며 “부교재 역할을 하는 ‘차이팡 키즈’ 유튜브 채널과 ‘차이팡 중국어’ 교재를 통해 비대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메디힐 ‘티트리 퓨어 클렌징폼’ 올리브영 론칭

티트리추출물 등 함유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 사용



엘앤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24일 신제품 ‘티트리 퓨어 클렌징폼’ (사진)을 CJ올리브영에 론칭했다.

순하고 부드러운 거품으로 자극 없이 딥 클렌징을 돕는다. 진정을 위한 기본 성분인 티트리추출물과 티트리잎오일은 물론, 메디힐 독점 개발 조성물인 티트리 카빙 바이옴과 티트리오일의 핵심을 추출한 4-터피네를 성분까지 함유해 피부에 더욱 편안한 힐링 케어를 선사한다.

또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촉촉한 미세 버블 입자가 피지와 노폐물을 말끔하게 세정해주고, 세정 후에도 속 당김 없이 촉촉하게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 결과 피부 자극 지수 0.00 판정을 받아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풍기름 인크 및 FSC 인증 종이 적용된 패키지로 환경까지 고려했다.

CJ올리브영 론칭 기념으로 ‘티트리 퓨어 클렌징폼’ 구매 시 50ml 용량의 동일한 티트리 클렌징폼을 추가 증정하는 기획세트를 판매 중이다. 또 6월에는 정상이 1만7000원에서 36% 할인한 1만9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차·기아·모비스, 국내에 63조 투자...‘그룹 미래 사업 허브’ 육성

전동화·친환경에 16조2000억 투자 순수 전기차 등 기술 우위 확보 목표 UAM·자율주행 등 신사업 가속화

현대차·기아·모비스 등 3사가 2025년까지 4년간 63조 원을 집중 투자해 한국을 그룹 미래 사업의 허브로 육성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주력한다. 이 분야에 현대차·기아·모비스는 총 1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전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순수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PBV(목적기반모빌리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현대차·기아·모비스 등 3사가 국내에 2025년까지 4년간 63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연구개발(R&D) 본사인 남양연구소 전경. 사진제공 |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에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체계 하에서 개발된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BV 전용 플랫폼 ‘eS’를 선보인다.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에도 8조9000억 원을 투자

한다. 완성차를 넘어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모바일 로봇 기술 및 모델 등을 개발한다. 또한 로보틱스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사업화하기 위한 본격 실증 사업에 나선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와 지역항공 모빌리티(RAM) 기체 개발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인프라 조성,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차량 제어, 라이다와 카메라 등 센서를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시 비상상황을 대비한 리던던시(Redundancy, 이중안전기술) 시스템 등 레벨4 자율주행 요소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로보택시와 로보셔틀은 상용화를 대비한 도심 실증 사업을 이어간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PBV, 로보트럭 및 셔틀 등 디바이스 콘셉트 모델 및 실물 개발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다양한 미래 신사업을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차·기아는 내연기관 제품 라인업을 최적화하고, 모비스는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한다. 3사는 또한 장비 및 설비 증설과 생산라인 효율화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과 판매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원성별 기자 sereno@donga.com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MOU체결식



위메프오, 배달앱 최초 ‘푸드 메타버스’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그리드 등과 메타버스 사업 추진

위메프오가 국내 배달앱 최초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 위메프오는 CJ올리브네트웍스, 갤럭시메타버스, 그리드와 메타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푸드 메타버스를 구축해 음식 배달·픽업 주문이 가능한 가상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상형 액티비티와 이벤트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각 사는 보유 전문 기술 등을 활용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위메프오는 음식 주문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프로젝트 총괄 기획 및 시스템 통합을, 갤럭시메타버스는 블록체인 및 NFT(대체불가토큰) 기술 운영을, 그리드는 메타버스 전체 플랫폼 개발을 맡는다.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는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푸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차별화된 플랫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